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격자 위에 정보를 세우다, 스위스 스타일(International Typographic Style)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864/>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하철 노선 안내판, 항공사 로고, 공항 표지판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식 없는 반듯한 글자가 격자에 맞춰 왼쪽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고, 멀리서도 한눈에 읽힙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화면의 뿌리를 따라가면 1950년대 스위스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다듬은 한 가지 양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양식이 바로 ‘스위스 스타일(International Typographic Style)’입니다. 스위스 스타일이란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격자 위에 산세리프 글자와 사진을 비대칭으로 배치해, 꾸밈보다 정보를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전하려 한 그래픽 디자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국제 타이포그래피 양식’이라 부르며, 학자에 따라 두 이름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흔히 같은 뜻으로 함께 씁니다. 본 자료에서는 스위스 스타일이 생겨난 배경부터 눈에 띄는 특징, 헬베티카라는 글꼴과 대표 디자이너, 그리고 세계로 퍼져 나간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를 질서 있게 보여 주는 디자인, 스위스 스타일 스위스 스타일은 어떻게 생겨났나? 스위스 스타일은 1920년대 유럽의 모더니즘 디자인을 이어받아 스위스에서 하나의 체계로 정리된 양식입니다.